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임실군, 'K-펫·치즈산업·성장 에듀케어 도시' 본격 시동

심민 임실군수

임실군(군수 심민)이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군은 앞으로 3년간 국비 지원금 90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 180억 원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교육부 컨설팅을 통해 최종 세부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만들어 지역 간 불균형 개선 및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월부터 전북특별자치도, 도 교육청, 임실교육지원청, 원광대학교 등과 긴밀히 협력해 왔다.

특히 군은 '돌봄-초-중-고-대학-취(창)업'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임실군 정주여건 개선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및 치즈 산업을 중심으로 한 임실 맞춤형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했다.

'K-펫·치즈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에듀케어 도시, 임실' 비전으로, 반려동물 및 치즈산업 연계 우수 인재 육성 및 지역정주 촉진을 목표로 추진됐다.

세부내용으로는 △임실형 상생돌봄 체계 구축 △지역특화 맞춤형 인재융합 양성 △반려동물 및 치즈산업을 통한 지역 정주형 전문인력 양성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오수면 일원에 반려동물 케어 및 행동 교정 교육 등 반려동물 특성화 캠퍼스인 반려누리학습센터를 구축하여 현장 실습형 교육과정 운영 및 취(창)업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선 4월에는 한국치즈과학고가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인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 치즈 산업체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치즈·바이오 산업의 기업 연계형 인재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을 통한 교육혁신에 우리 임실군이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통해 펫치즈 산업과 함께 지역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 모델 추진 등 '교육혁신 1번지'로 도약

최영일 순창군수

순창군이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며, 교육혁신 1번지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선정으로 순창군은 3년간 국도비 117억 원을 포함해 총 18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 모델을 추진하는 동시에 농촌유학 활성화로 정주인구 증대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군은 전북의 다른 5개 시군과 함께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연차평가와 추가 컨설팅 등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와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순창군의 교육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과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된다.

앞서, 군은 이번 공모를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기업과 공동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 추진안을 마련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안심돌봄을 위한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늘봄 추진 △생애주기와 연계한 맞춤형 건강식단을 통한 소아비만관리 △어학·진로진학센터 설치 △농촌유학 거점시설 설치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군은 'K-발효바이오산업과 농촌유학 1번지 순창'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역 교육발전을 견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인재 육성은 물론, 교육 여건 개선으로 '아이 키우기 좋고, 교육하기 좋은 순창'으로의 변모를 꾀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보건소, '세계 모유 수유 주간' 기념행사 추진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오는 8월 한 달 '세계 모유 수유 주간(이하 주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간은 매년 8월 1일부터 7일까지로,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가(UNICEF) 지정한 건강 주간이다.

이번 행사는 2024년 세계모유수유연맹(WABA) 슬로건인 '모두를 위한 모유 수유'를 알리고, 모유 수유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온라인)모유 수유 퀴즈 풀고 수유용품 선물 받기 △다문화가정 모유 수유 및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교육 △모유 수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모 대상 가정방문 모유 수유 클리닉(가슴마사지 지원 및 수유 자세 교정) 등이다.

이외에도 보건소에서는 매월 둘째주 화요일 국제모유수유전문가와 함께하는 1:1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및 유축기 대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임산부는 모자보건팀(063-620-7981~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은아 치매안심과장은 "모유 수유는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며, 앞으로도 모유 수유율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만인공원 조성사업 '착착'

남원시, 도심 속 시민 생태 휴식공간 조성 사전행정절차 순조

남원시가 구)남원 역사와 향기원 부지에 만인의 총, 광한루, 남원읍성 등 도심 내 주요 거점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계, 도심 속 시민의 생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만인공원 조성사업' 사전행정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시에서는 그동안 구)역사 부지로 방치돼 있던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토지를 올해 3월까지 모두 매입 완료하고 현재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를 지난해 12월부터 추진 중이다.

사업 부지는 문화재 구역에 속해 있어 매장 유산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발굴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조사를 통해 읍성과 관련된 건물지, 우물, 석축유구, 담장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이번에 시행하는 시·발굴조사는 매장 유물조사를 위하여 8월 중 현장의 수목을 벌목하고 지장물을 철거할 계획이며, 그동안 남원시민의 기억 속에 함께했던 구)남원 역사와 플랫폼도 철거를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 철거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과 함께한 오랜 추억의 깃든 수목을 벌목하게 되어 매우 아쉽다지만, 시굴 조사에 방해되지 않는 수목은 최대한 존치하고 시굴 조사 후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추가적인 벌목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 그루의 수목이라도 존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이 지난달 31일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위한 관내 문화탐방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역 문화탐방 '호응'

순창군, 채계산·발효테마파크 등 방문… 한국 문화 이해 높여

순창군이 지난달 31일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위한 관내 문화탐방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참가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지난 4월, 라오스 출신 여성 30여 명은 순창군에 입국해 지역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군은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번 문화탐방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채계산에서 시작된 여정은 참가자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한 베트남 출신 근로자는 "산의 경치가 정말 아름다웠고, 고향과는 다른 풍경이라 신선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진 발효테마파크와 발효소스토굴 방문은 '발효의 고장' 순창의 특색을 잘 보여주는 시간이었으며, 특히 발효쿠킹클래스에서 직접 전통 발효음식을 만들어보는 체험은 참가자들의 큰 인기를 끌었다.

오후에는 발효소스토굴을 둘러보며 순창의 주요 산업에 대해 이해를 넓혔고, 마지막으로 찾은 강천산에서는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며 여름 더위를 식히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한 근로자는 "처음엔 일만 하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루 동안 순창의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면서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오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문화탐방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단순한 관광이 아닌, 순창을 이해하고 애착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랐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이번 행사의 성공을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생태계교란식물 '가시박' 집중 제거

임실군이 섬진강 상류 하천변에 주로 서식하는 가시박 집중 제거를 실시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6월 말부터 생태계교란식물의 확산을 방지하고 우리나라 고유식물의 서식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가시박 집중제거 기간을 운영했다.

이번 작업 구간은 옥정호 상류인 임실군 신평면 대리부터 운암면 학암리 일원까지 가시박 주요 서식지 약 8km 하천변이다.

군은 전담 인력 약 20명을 투입하여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을 집중적으로 제거했다.

가시박은 빠른 성장과 번식력, 쉽게 이동하고 확산되는 특성 등으로 인해 2009년 환경부에서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한 식물로 전북지역은 섬진강변에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인근의 수목과 농작물 등을 감고 올라가 다른 식물의 광합성을 저해하고 고사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린다.

제거방법은 뿌리째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하천변의 경우 상류 쪽에서 집중적으로 제거해야 그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소방서, 물놀이 사고 예방 안전수칙 홍보

순창소방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이나 하천을 찾는 피서객이 증가함에 따라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홍보에 나섰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최근 5년(2019년~2023년)간 물놀이 안전관리 기간(6~8월)중 발생한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총 122명으로 전국의 물놀이장과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하는 7월에 전체 사망자의 43%(52명)를 차지하고 있다.

원인별로는 수영미숙으로 인한 사망자가 36%(44명)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 부주의 33%(40건), 음주수영 17%(21건)순으로 나타났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구명조끼, 튜브 등 안전장비 착용 △수영 금지구역 진입 금지 △안전요원 위치 및 위험지역 사전 확인 △음주 후 입수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순창=이양원 기자